

眞眞한 그들의 깨끗한 자곡에는
 고소한 향기가 생의 神秘를 속삭이며 넘쳐흐릅니다
 사랑의 創造인 나의 나를 나는 한갓 그리워하노니
 秘密의 宮殿인 나의 가슴에 나를 永遠히 얹어 주시오.
 潑瀾한 宇宙의 新鮮한 精氣를 生命의 金盞에 가득 부어
 青春의 歡樂을 웃음이 노래케 하여 주시오

가을 三題

설사 머리털은 가을의 서리를 들끓이 있을지라도
 나의 꿈은 항상 북은 葡萄酒에서 깨지 안케 하여 주시오
 感情의 북은 酒精으로 意志의 琵琶를 노닐지라도
 일곱에는 曲線과 直線의 주를 續를 노닐지라도
 가슴엔 향기롭고 비쭈운 薔薇花를 그려 주시오
 오오 어린 꿈에서 젊은 노래로!

三九〇八〇二日

表忠의 밤

밤!
 김촌방!
 沈黙을 갖다 주는 天使의 밤!
 表忠의 寢靜을
 고하고 기쁘드려 노았다.
 한줄기 子正 鍾소리

朴 奉 石

꽃잎 시울너간다—
 나무사이로 巫山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도
 한모퉁이 巫한모퉁이
 限없이 紗라간다.

가을달빛은 法堂에 차는데
 月坡和尙은 어뵈가고
 불방아만 쿵—쿵—쿵—

戴藥山中 허리에
 색도는 저 鍾소리만
 寢靜의 記憶을 속살 거릴 뿐이다.

秋 夜

한쌍가 가을달은
 山머리에 자남직 달너있고
 악가짓는 짜이른 기력은
 의로움제 도라움제
 울나짓는 一葉片舟도
 불결싸라 나려온다
 쪼각달 쪼각배 자취감추나
 기력에도 잠잠
 江山도 寂寂

달 아!

달아! 가을달아!
 빛출썰로 빛추어라
 이마울이나 저마울이나
 神秘로운 나의 힘으로
 고하고 기쁘나라로 가고있네

處女の 정가슴 속 쓰러지라도—

달아! 가을달아!
 빛출썰로 빛추어라
 東에서 西으로 南에서 北으로
 悲哀와 自然을 취모라다가
 詩人들의 가슴속에
 古세히 맹렬이 焦點으로 빛추어라.

그래! 빛출썰로 빛추어라
 光明한 나의 힘!
 神秘로운 나의 힘!
 오—나는 憧憬한다…… 항상

二九五五〇二二〇一號 寢靜日記 續에서!

